

# 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도시영화제

# 용산참사 10주기 도시영화제

인디  
스페  
이스

청계  
천  
을지  
로

서촌  
궁중  
족발

노량  
진  
(구)  
시장

경의  
선  
공유  
지

홍대  
두리  
반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59-7  
Indiespace  
59-7, Gwansu-  
dong, Jongno-gu,  
Seoul

신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2 5층  
Sindoesi  
5F, 11-2, Supyo-  
dong, Jung-gu,  
Seoul

한국기록교사회문제  
연구실 이재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지하 1층  
Eze Hall  
B1, 35,  
Chungjeong-ro  
2-ga, Seodaemun-  
gu, Seoul

(구)노량진  
수상시장 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Former)  
Noryangjin  
Fish Market  
13-8, Noryangjin-  
dong, Dongjak-gu,  
Seoul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9-12  
Giraffe Castle  
in Gyeongui Line  
Common  
169-12, Yeomli-  
dong, Mapo-gu,  
Seoul

두리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교동 370-5  
Duriban  
370-5, Seogyo-  
dong, Mapo-gu,  
Seoul

# 2019.

# 1.11.-27.

Yongsan Tragedy  
10th Anniversary  
Urban Film Festival



주최  
용산참사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주관  
리슨투더시티  
연분홍치마  
인디스페이스

문의  
listentothecity.org  
@gmail.com

# 보도자료\_ 용산참사 10주기 도시영화제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 1 가 75 번지 전화 : 02-3147-1444 전송 : 02-6008-0273 mbout@jrbonet 홈페이지 : mbout@jrbonet

수신	귀 언론	참조	문화부, 사회부, 사진부 등
발신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사무국장 이원호 영화제 문의
발신일	2019. 1. 10(목)		
제목	'용산참사 10주기' 도시영화제 개최		

-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인디스페이스와 청계천을지로, 서촌 궁중족발 등 극장과 강제퇴거 현장에서 도시영화제 개최
- 공동정범, 두개의문, 용산남일당이야기 등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와 어떤점거, 청계천 등 도시와 개발의 문제를 다룬 다큐 상영
- 12일에는 용산참사 이후 현장에서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여 여러 활동으로 확장해 나간 미디어활동가들의 <용산참사 그리고 카메라 : 재난을 기록하다> 포럼도 개최된다.

## 취지

도시영화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드러내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로써 2011년 강제퇴거 위기의 홍대 두리반 식당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매해 도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서 함께하여 회현아파트, 순화동, 옥바라지 골목, 궁중족발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리슨투더시티, 인디스페이스, 연분홍치마가 함께 기획하여 도시라는 공통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월 12일에는 용산참사 10주기 미디어활동가 포럼 <용산참사 그리고 카메라 : 재난을 기록하다>도 함께 개최 합니다.

<포럼 소개> 1월 12일 17:10인디스페이스

용산 참사 그리고 카메라 : 재난을 기록하다

진행 : 신은실(영화평론가), 패널 : 설해, 넝쿨, 채은

용산 참사를 계기로, 도시개발법이 바뀌고 도시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바뀌었으며, 국가와 폭력을 질문하는 예술가들이 늘었다. 용산을 다룬 다큐멘터리만 10편이 넘고 술한 극영화가 만들어졌다. 독립다큐멘터리는 관습과 제도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태도와 방법을 견지한다. 소위 현장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분쟁의 장소에서, 재난의 장소에서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운동의 참여자이자 관찰자로 함께한다. 이번 포럼은 용산참사 이후 현장에서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여 여러 활동으로 확장해 나간 감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들의 참여 방식은 주류언론과 국가적 사회적 폭력을 마주하는 개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때문에 인류학적이고 또한 페미니즘적이다. "너희들은 활동가이냐 예술가이냐?"라는 질문은 낯았다. 오히려 이들이 참여와 관찰의 경계를 오가는 수행성을 탐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시 : 2019.1.11(금) ~ 1.27(일)

장소 : 인디스페이스, 신도시, (구) 노량진 수산시장,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세홀, 경의선 공유지, 두리반

문의 : [listen-to-the-city.org@gmail.com](mailto:listen-to-the-city.org@gmail.com) / =

예매 :

1) 인디스페이스 상영작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예매해주세요

<http://indiespace.kr/4188>

2) 나머지 공간의 상영작들은 아래의 양식을 통해 예매해주세요. <http://bit.ly/도시영화제>

3) 포럼은 별도의 신청과 참가비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1) 인디스페이스 상영작 6,000 원

(\*용산 10주기추모위원회는 무료, 010-3258-0614 로 문자를 통한 신청(상영작품명/신청자 성함) 인디스페이스 상영 수익은 용산 10주기추모위에 전달됩니다)

2) 나머지 공간 상영작품은 무료, 자율기부 (\*나머지 현장의 자율기부금은 전액은 궁중축발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최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주관 : 인디스페이스, 리슨투더시티, 연분홍치마

후원 : 인디스페이스, 시네마 달, 신도시, (구)노량진수산시장, 경의선 공유지, 두리반, 김동원, 연분홍치마, 장호경, 켈리, 청승, 촛불방송국레아, 평창올림픽반대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도시영화제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성폭력에 강력히 반대하며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상영 일정]

\*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구 관수동 59-7) <http://indiespace.kr/4188>

1월 11일 (금) 18:00 <23X371 - 용산 남일당 이야기>

1월 11일 (금) 19:40 <마이스윗홈 - 국가는 폭력이다> (GV)

1월 12일 (토) 14:00 <용산 337 가지로 표현하기 : 촛불방송국 레아>

1월 12일 (토) 15:30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

1월 12일 (토) 17:10 [포럼] 용산 참사 10주기 미디어활동가 포럼

<용산 참사 그리고 카메라 : 재난을 기록하다>

1월 13일 (일) 17:00 <두 개의 문>

1월 13일 (일) 19:00 <공동정범> (GV)

\* 신도시 (서울 중구 수표동 11-2, 5층)  
1월 14일 (월) 15:00 <도시목격자>, <청계천 DDP 젠트리피케이션>, <청계천> (GV)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지하 1층)  
1월 15일 (화) 21:00 <끝나지 않은 편지> (GV)

\* (구) 노량진 수산시장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1월 16일 (수) 19:00 <내 친구 정일우> (GV)

\* 정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9-12)  
1월 17일 (목) 19:00 <예외상태> (GV)

\* 두리반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0-5)  
1월 27일 (일) 16:00 <어떤 점거> (GV)

#### [관객과의 대화 및 포럼]

1.11 (금) <마이 스위트 홈 - 국가는 폭력이다> 상영 후, 진행 : 공미연(서울영상집단),  
참석 : 김청승(<마이 스위트 홈> 연출)

1.12 (토) [포럼] 용산참사, 그리고 카메라 : 재난을 기록하다,  
진행 : 신은실(영화평론가), 패널 : 설해, 넝쿨, 채은

1.13 (일) <공동정범> 상영 후, 진행 : 이원호(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참석 : 김일란, 이혁상 (<공동정범> 연출)

1.14 (월) <청계천> 상영 후, 진행 : 리스투더시티, 참석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1.15 (화) <끝나지 않은 편지> 상영 후, 진행 : 리스투더시티, 참석 : 윤경자(궁중족  
발), 공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1.16 (수) <내 친구 정일우> 상영 후, 진행 : 리스투더시티, 참석 : (구)노량진수산시  
장

1.17 (목) <예외상태> 상영 후, 진행 : 리스투더시티, 참석 : 평창올림픽반대연대, 이  
희성

1.27 (일) <어떤 점거> 상영 후, 진행 : 리스투더시티, 참석 : 안종녀(두리반), 켈리  
(<어떤 점거> 연출)

#### [상영작 정보]

<23X371 - 용산 남일당 이야기 The Story of Namildang in Yongsan>

오두희 | 2010 | 86min

용산 참사 이후,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에 맞서 싸우며 남일당 분향소를 지킨 '용산 4  
상공철대위' 23인. 이들의 절반은 60이 넘는 여성들이었지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  
고 참사 1년여 만에 장례를 치른다. 영화는 특유의 강인함과 낙천성으로 남일당을 지  
킨 23인의 371일을 기록하고 있다.

<마이 스위트 홈 - 국가는 폭력이다 my sweet home - the nation is violence>

김청승 | 2010 | 120min

용산 참사 이후 재판이 시작된다. 참사 직후 구속된 6명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명  
(김성환, 천주석, 김창수)의 철거민에 대한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였다. 검  
찰이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던 변호인단

은 재판을 거부하고 물러난다. 그럼에도 재판은 강행되었고, 2009년 가을 피고들은 일주일 만에 새로운 변호인단(김형태 등)을 선임한다. 이후 재판은 구속 만기일에 맞춰 일주일에 2회 밤낮없이 속행된다. 검찰이 화인으로 제시한 화염병에 의문을 가진 김형태 변호사는 발전기, 전동 그라인더 등 다양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법정을 오가던 3명의 불구속 피고들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선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고향을 다녀오고 동네를 돌아보며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던 피고들은 선고를 앞두고 눌러놓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용산 337 가지로 표현하기 : 촛불방송국 레아 Yongsan, Expression in 337 Way : rhea>

레아 | 2010 | 74min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재개발과 망루, 그 위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 후 망루 위의 사람들과 망루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1년을 함께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는 장례도 치르고 용산 참사의 현장에서 모두 떠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1년동안 함께 울고 웃고, 밥을 먹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다. 이 영상들은 폭력적인 철거 현장에서의 삶과 용산 참사라는 무거운 사건 속에서 견뎌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 Those Who Can't Leave>

장호경 | 2012 | 86min

2009년 1월 20일, 용산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철거민들이 개발에 맞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 여섯 명의 죽음으로 시작됐던 용산 참사는 2010년 1월 9일, 참사가 일어난 지 355일 만에 다섯 명의 철거민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면서 일단락됐다. 이 영상은 용산 참사 이후 355일간의 투쟁 기록이다.

<두 개의 문 Two Doors>

김일란, 홍지유 | 2011 | 101min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 사망. 생존권을 호소하며 망루에 올랐던 이들은 불과 25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내려 왔고, 살아남은 이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철거민의 불법폭력시위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발표,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의 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공동정범 The Remnants>

김일란, 이혁상 | 2018 | 106min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이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철거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원인 모를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동료와 경찰관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범의자가 되었다. 반가움도 잠시,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잔인한 말들을 쏟아낸다. 그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시목격자 >

리슨투데이시티 | 2017 | 40min

일산 풍동의 <골리앗의 구조>(2006, 김정만), 은마아파트의 <모래>(2011, 강유가람), 용산의 <두 개의 문> (2011, 연분홍치마), 두리반의 <어떤 점거>(2016, 켈리), 아현포차와 우장창창의 <우리는 오늘도>(2017, 창작집단 3355). 도시문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도시는 무엇이었는지 다섯 장소와 다섯 작품을 다섯 감독과 함께 다시 찾아보았다.

<청계천 DDP 젠트리피케이션 Cheong-gye Cheon, DDP Gentrification>  
리슨투더시티 | 2017 | 27min

2003년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재개발 이후 삶터에서 쫓겨난 노점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주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허구성에 주목한다

<청계천 cheongyecheon>

리슨투더시티 | 2019 | 10min

60년 된 청계천 공업사들과 공구상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공구상가, 공업사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을 허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상인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괴롭힘에 의해 강제 이주 당했다. 서울시는 제1의 젠트리피어가가 된 것이다. 58년에 문을 연 평안상사 사장님, 85년부터 혼자 기업을 세운 미광철 사장님, 19살부터 청계천에서 일해온 선일공구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도시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다.

<끝나지 않은 편지>

리슨투더시티 | 2017 | 19min

리슨투더시티는 옥바라지 골목 보존 투쟁을 겪으며, 옥바라지 골목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민주화운동가 김근태와 인재근의 편지에서 옥바라지는 연대의 정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연대의 정신을 현대의 맥락에서 고민했다.

현재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장소들에서 부당해고에 10년 넘게 싸운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연대자,

400일 넘는 굴뚝 고공농성 이후에도 다시 굴뚝에 오른 과인택 노동자들, 건물주에게 가게를 약탈당하고 점거를 시작한 궁중족발 사장님과 연대자가 인재근과 김근태의 편지를 읽는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구성했다.

<내 친구 정일우 Jung il-woo, My Friend>

김동원 | 2017 | 85min

미국에서 태어난 정일우 신부는 1960년대부터 한국에 살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다.

20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여러 투쟁 현장을 지켰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영화는 정일우 신부의 발자취를 다양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며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듣는다.

<예외상태 State of exception>

제이슨 오하라 | 2017 | 88min

브라질은 2014 월드컵과 2016 올림픽 준비를 시작한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는 '예외상태'에 놓였다. 전통과 역사가 머무른 마을이 부서지고, 버려진 땅에 벽돌을 쌓아 지은 집이 허물어지며 주민들이 내쫓긴다. 축제 당일 경기장에는 브라질 국기가 펄럭이고, 경기장 바깥에서는 무장한 경찰들이 총과 곤봉을 들고 시위대를 맞이한다. 선주민들은 폭력에 맞서 춤을 추고 구호를 외치고 나무를 오른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버려진 건물을 점거하고 마당에 잔디를 심는다. 축제를 위한 예외상태, 그리고 그 예외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함께 맞서 싸우고 있다.

〈어떤 점거 The Occupation〉

젤리 | 2016 | 104min

두리반은 홍대에 위치한 칼국수집이다. 2009년 12월 24일 철거된 다음날인 25일 밤, 세입자 부부가 펜스를 뚫고 들어가 농성을 시작한 뒤 전기가 끊긴 두리반은 부부와 자발적 상시 연대그룹 '상근자'들의 삶의 거점이자,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만 들어가기 위한 진지가 되어가는데...